

아동 혹은 청소년 심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질문

1. 면담 시작하기

1.1 사전 준비

면담을 위한 부모 및 아동의 준비

부모(또는 다른 양육자) 및 아동과의 초기면접은 보통전화통화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 라포 형성은 그 가족이 임상가의 사무실(예: 진료실, 상담실, 평가실)에도착하기전에 시작된다. 부모가 면담하는 것을 불안해하는지, 적대적인지, 열의가 있는지, 양가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고, 실제 면담에서 가족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이 평가를 활용하라.

첫 회기에 가족구성원 중 누가 참석할 지전화통화를 해서 부모와 상의하라(예: 부모 중 한 명 혹은 모두, 아동등) 당신을 언급할 때아동의 부모가 사용해 주길 바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라.

아동과 무엇을 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평가/면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 고평가비용이 얼마인지를 부모에게 알려주어라 부모는 첫회기에 대비하여 자녀를 준비시키는데 임상가의 도움을 자주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면담 또는 평가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 아동이 평가목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술을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최근에 학교에서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또는 “네가 요즘 정말 슬퍼 보였단다. 그래서 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올 수 있을지를 누군가와 이야기해보고 싶단다.”가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아동이임상가의 평가를 왜곡하거나 아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1.2 면담과정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지침

부모와 아동을 같이 면담하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요청한다(상대방과 함께 있으니 너희 방을 벗어나서) 한쪽이나 양쪽부모를 먼저 면담하고, 이어서 아동을 면담하고, 그런 다음 함께 면담한다

1.3 라포형성

일반적인 팁

아동의 이름을 호명하며 아동을 맞이하고자 신을 소개하라. 임상 가는 아동이 불러주길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라. 어떤 임상 가는 이름이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반면에, 다른 임상 가는 직함(예: ‘선생님’)으로 불리고자 할 것이다. 많은 임상가 들은 매우 어린 아동과는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청소년과 작업할 때는 직함을 사용한다.

어린 아동에게는 편히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만일아동이 집에서 가져온 어떤 것이 있다면, 대화를 진행할 때 그것을 이용하라.

당신이 아동에게 말한 것과 첫 질문은 특정아동에게 적합해야 하고 융통성 있어야 한다 (초기 면담 질문에 대해서는 제3장을 참조하라). 그러나 여기에는 “몇 살이니?”, “애완동물을 키우니?”와 같이 아동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자주 포함된다.

개방성, 온정성, 공감, 존중을 갖고 아동에게 반응하라. 배고픔, 신체활동의 필요, 혹은 화장실 사용과 같은 아동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에 반해서, 행동을 제한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알고 있어라. 필요하면 연령에 맞게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라.

영아(2세 6개월 ~ 6세)

이 연령대의 아동이 즐거워하는 활동 및 장난감유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라. 이 연령대에서 현재 인기 있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러면 당신은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질문할 수 있다.

아동의 옷, 사무실에 가져온 장난감, 대기실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 사무실까지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에관해이야기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하라.

아동의 정서상태를 인식하고 아동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적절하게 반응하라.

매우 어린 아동과의 라포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는 아동이 선택하여 그림 그리기, 구조화된 게임하기(캔디랜드, 커넥트포, 만칼라 같은 보드게임) 또는 ‘개방형’ 장난감 갖고 놀기(블록, 찰흙, 인형등)가 있다.

학령기아동(6~12세)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취미, 교사, 학교, 방과 후활동, 친구, 비디오게임, 운동, 옷, 쇼핑, 오락실등에관해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활동, 장난감, TV 프로그램, 컴퓨터게임등이연령대아동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라.

사무실까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라포형성을 시작하라.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고 왔는지 아니면 예약 때문에 조퇴하고 온 것인지, 사무실에 가져온 어떤 물건(예: 게임보이, 아이팟, MP3 플레이어 등), 책 혹은 이와 비슷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만약 치료 시작의 의도로 평가가 완성된 것이라면, 연령대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와 치료 규칙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치료‘규칙’은 각 사례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병원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규칙’은 치료자에 의해 부모 자녀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포함한다(예: 모든 것이 공유될 수 있다, 치료자가 법적으로 보고서를 요구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공유되지 않는다, 남자친구/여자친구와 같이 어떤 주제는 한계가 없다 등). 다른 ‘규칙’은 부모가 치료자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아동은 이러한 만 남의 빈 도와 내용을 포함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치료가 개인에게만 필요할 것인지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인지 등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기본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에게 설정하는 한계에 대해 토의를 개 방하는것 자체가 치료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하다.

아동이 겪은 일을 스스로 말하도록 질문하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이러한질문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아동 혼자 그리고 부모 면전에서)를 결정하라. 만약 당신이 아동의 솔직한 견해를 원한다면, 주로 부모와 떨어진 곳에서 아동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소년(12~ 18세)

청소년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청소년들 은평가 또는 치료에 대한 기대가 좋지 않고, 대체로 임상가를 그들의 감정을 입증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청소년은 또한 성숙한 개인으로 대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합당한 선에서 청소년을 마치 성인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청소년이 법적 성인인 18세에 도달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성인으로서 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치료자의 책임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가족과 아동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분명하고, 수용할만하며, 문제가 되는 모든 것에 치료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치료 ‘규칙’과 비밀 유지를 논의하라(앞의 내용참조). 청소년은 회기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부모와 공유되거나 공유되지 않을 정보는 무엇인지, 회기가 얼마나 자주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한 이러한 ‘규칙’을 세우는 데 훨씬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